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홍보관을 찾아 돌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2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특화산업 조성’ 국민이 바라는 지역 균형발전 1순위

우리 국민들이 ‘6·3 대선’으로 당선 될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지역 균형발 전의 첫 번째 과제는 ‘지역 특화 산업단 지 조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 역 의료기관 확충’, ‘중앙 행정기관 지 방이전’, ‘광역 교통망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대선후보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시청했거나, 뉴스 또는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다고 답변 했다.

TV토론으로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는 공고해지는 반면 지지 철회는 극소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V토론이 당락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셈 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남매일을 비롯한 전 국 29개 지역 대표신문이 소속된 대한

민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한국갤럽 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확인됐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차기 대 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란 질문에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 성’이 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 의료기관 확충’ 20%, ‘중앙 행정기관 지방이전’ 15%, ‘광역 교통망 확대’ 15%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도 ‘지역 특화 산업 단지 조성’이 27%로 가장 높았고, ‘지 역 의료기관 확충’ 22%, ‘중앙 행정기 관 지방이전’ 15%로 조사됐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전북 ‘공공의 대 설립’ 등 지역 현안과 연계, 전국

### 전남매일-대신협 대선 공동 현안조사

의료기관 확충·행정기관 이전 순 TV토론 관심↑…당락 변수 글썽 정당지지도 민주당 오차 밖 선두

20%인 ‘지역 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3회 실시되는 ‘대선후보 TV 토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 다.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시청했거 나, 뉴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 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86%가 ‘본

적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 대선후보 TV토론을 시청한 것이다. ‘본 적 없다’는 14%, 모름/응답거절은 1%였다.

또 ‘토론회가 후보 선택에 다음 중 어 떤 영향을 주었습니까’란 질문에 52% 가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되 었다’는 항목을 선택했다. ‘지지후보 를 바꾸게 되었다’는 3%,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으나 지지하던 후보가 생겼 다’는 7%,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36%였다.

이런 결과로 유추해보면 대선후보 TV토론이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 성은 낮아 보인다. TV토론 이후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는 더욱 굳어지는 반면 지지 후보 철회는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 문이다.

‘지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토론을 가 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후보는 누구입 니까’란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0%, 국민의힘 김문수 17%, 개혁신당 이준석 28%, 민주노동당 권영국 5%, 특별히 잘한 후보 없다 7%, 모름/응답 거절 3%였다.

광주/전라의 경우 이재명 59%, 김문 수 4%, 이준석 17%, 권영국 8%, 특별 히 잘한 후보 없다 7%, 모름/응답거절 5%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3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 선 가운데 개혁신당 7%, 조국혁신당 3%였다.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

67%, 조국혁신당 9%, 국민의힘 7%, 개혁신당 2%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 협의회 의뢰로 한국갤럽이 2025년 5월 20~21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CATI)를 실시했다.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 구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 부 여(셀가중)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7명(총 통화 6,355명 중 응답완료 1,007명, 응답률 15.8%)이다. 표본 추 출은 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 위 추출 방식이며, 오차범위는 95% 신 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 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현수 기자

## 선관위, 윤 관람 부정선거론 영화에 “음모론 부추겨”

“부정 소지 없어…깊은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 의 작품인가’와 관련, “부정적이고 자 극적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 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화 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위원 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 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영화에 대해 “유튜브 등에 서 제기되었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

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를 확 신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 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 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 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 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 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 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신속히 대응해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투·개표 등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부 정선거 의혹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 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불신을 해소한다는 절박 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제21대 대선 투· 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학회 주도로 구성된 공정선거감판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동대 문구의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론을 다 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제작자 전한길씨 등과 함께 관람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민주 광주선대위원장 합류

경제·의료계 등 2차 인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원회에 조국혁신당과 지역 경제단체·의료계 가 합류했다.

민주당 광주선대위는 22일 광주시당 선거연락소에서 선대위 2차 인선안을 발표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광주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단에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참여 했다.

서 원내대표는 영광 출신으로 올해 5 월부터 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광주시당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차 인선에는 지역 각계각층의 전문 가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포함됐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양진석 광주경영 자총연합회장, 최정섭 광주의사협회

장, 김동균 광주약사회장, 최의권 광주 한의사회장, 김종효 전 광주시 행정부 시장, 김정수 광주평화재단 대표, 김영 순 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강행욱 전 광주변호사협회장, 정병민 광주지방공 인회계사회장, 이정권 광주경영자총연 합회 부회장, 임원식 광주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정영권 성군관유도회 광주본부회장 등이다. 길용현 기자

## 대선 후보 상대 장외 고발전…“협박”·“내란방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장외 고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2일 이 후보를 협박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중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 혔다. 그는 이 후보가 3월 19일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

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당시 대통 령 권한대행에 “몸조심하시기를 바란 다” 등으로 비판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국민 의힘 김문수 후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 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 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란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민의힘이 전국 다수의 불특정 교사에 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메시지와 임명장을 보냈으며 영 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BALLISTIC R&D 연구소를 중심으로 골프 클럽, 기어 역학적 매커니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골퍼를 위한 최상의 클럽을 선보였으며 이 특별한 결과물이 바로 BALLISTIC입니다.

**발리스틱골프 OPEN**

클럽 · 어패럴 · 악세사리

**발리스틱골프 광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골드메디타워 1F

062 · 716 · 3040

광주점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골드메디타워 1F